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創立 第三週年 紀念 行事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는 9월 24일 創立 第3週年을 맞이하여 生活科學對談放送, 講演會, 영화감상 및 京仁地區産業視察 등 多彩로운 紀念行事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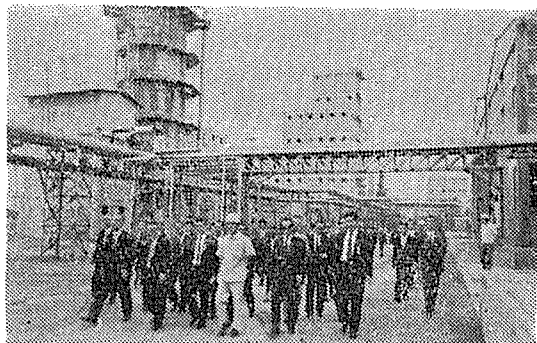
이날 오전 10시에 수포동 건기회관 강당에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박사와 三百餘 회원이 참석하여 盛大한 紀念式을 가졌는데 金允基會長은 이날 開會辭를 통하여 祖國近代化를 위한 第二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遂行過程에 있어서 科學技術人의 莫重한 責任과 獻身的 자세를 強調하였으며 式順에 따라 김기형 과학기술처장관의 祝辭로 紀念式은 마쳤다.

이어 本聯合會 副會長 金東一博士의 西獨의 科學技術政策이란 題目으로 紀念講演을 가졌는데 여러 聽衆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도 科學技術發展을 위하여 西獨政府에서와 같이 보다 폭넓은 政府의 支援을 아쉬워했다.

講演後에 産業建設相 영화관람을 끝으로 午前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

午後에는 산하단체 대표회원 50여명이 신진자동차공업회사에서 제공한 車便으로 신진자동차공업회사, 이천건기회사, 한국기계공업회사, 인천중공업회사, 인천항만 및 동양화학회사 등의 산업상을 시찰하고 돌아왔으며,

저녁에는 TV 放送을 통하여 生活의 科學化를 위한 여러개의 Item 을 가지고 對談放送을 하였다.



KBS-TV에서는 本會長 김윤기장관과 科技處 김기형 장관이 70년대 과학기술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MBC-TV에서는 원자력청장 안치열박사와 방사선 농학연구소장 심상철박사가 국민생활과 원자력이용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TBC-TV에서는 연세대학교수 권속표 교수와 카톨릭의대 조규상박사와의 국민생활과 公害문제에 관한 흥미진진한 對談을 끝으로 이날의 모든 行事를 마쳤다.

<편 집 실>